
碩士學位論文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1997年 12月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指導教授 庾 喆 仁

安 美 貞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安美貞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申 幸 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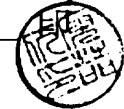
委 員

김 득 보



委 員

유 철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7年 12月

Images and the Social Identity of
Cheju Female Divers

Mi-Jeong An

(Supervised by Professor Chul-In Y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12.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이론적 배경	3
3. 연구방법	5
II. 제주해녀의 현황	8
1. 제주해녀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	8
2. 제주해녀와 지역경제	10
III.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	13
1. 문헌에 나타난 이미지	13
2. 상품화된 이미지	18
3. 제주해녀의 모습	28
IV.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	33
1. 물질을 하게 된 동기	33
2. 물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36
V.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	39
1.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	39
2.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	42
3. 세대와 사회적 정체성	45
4. 물질 숙련도와 사회적 정체성	47
5. 他者の 의미	49
VI.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록: 제주해녀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표〉	54

〈 표 목 차 〉

〈표-1〉 연도별 제주해녀수	9
〈표-2〉 연도 및 연령별 제주해녀 구성	9
〈표-3〉 어업별 생산추세	11
〈표-4〉 수산물 수출에서 제주해녀에 의한 수출비중	12

〈 사 진 목 차 〉

〈사진 1〉 한경면 판포리 해녀상 (해녀촌)	20
〈사진 2〉 구좌읍 동복리 해녀상 (해녀촌)	20
〈사진 3〉 애월읍 구엄리 해녀상 (해녀촌)	21
〈사진 4〉 인어와 魚神, 그리고 제주해녀 (석상제작소)	23
〈사진 4-1〉 해녀상 (부분)	23
〈사진 5〉 해녀군상 (석상제작소)	24
〈사진 5-1〉 해녀상 (부분)	24
〈사진 6〉 해녀 마네킹 (토산품점)	26
〈사진 7〉 장식용 해녀 좌상 (토산품점)	26
〈사진 8〉 해녀 쟁반 (토산품점)	27
〈사진 9〉 신혼부부 사진틀 (토산품점)	27
〈사진 10〉 작업을 마친 후 망시리를 들고 나오는 모습 (온평리)	29
〈사진 11〉 작업 후 불턱으로 향하는 모습 (온평리)	29
〈사진 12〉 귀가하는 제주해녀들 (판포리)	30
〈사진 13〉 최고령의 제주해녀 (우도)	30

SUMMARY

Cheju female divers are represented as an image of the diligent and strong woman in the various kinds of articles. With such an image, they have become the symbol of Cheju women, and furthermore, the symbol of Cheju Island. Cheju female divers are also commercialized by tourist industry as an image of the attractive young woman, that is different from real one. It indicates that the images of Cheju female divers is transformed and exploite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and commercial purposes.

Cheju female divers are those who dive without the aid of air apparatus and gather marine products. Even though diving is very hard, they continue to dive because of higher income than that from other agricultural works. Their social identity and others' imaginative reconstruction about them is based on how their diving is conceived.

The social identity of Cheju female divers, that is, the way they believe others consider them,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tions. Cheju female divers of young generation in 30's, who took to dive as a job, think that others also consider them as a professional worker. Old generation over 60's states that others recognize it as

those who have had hard time and that they are highly praised for their hard time.

Those in 40's and 50's who have dived most actively at present, however, believe that others, especially Cheju Islanders, regard them as low, remembering their poor past. For one's social identity, it is important who are others. The significant others for Cheju female divers are Cheju Islanders and tourists from mainland. Most Cheju female divers think that tourists from mainland see them as a kind of curious show.



I. 서론

1. 연구목적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인의 전형(典型)이라고 일컬어져 왔다.¹⁾ 半農半漁의 성격이 강한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제주해녀는 물때에 맞추어 물질을 하며,²⁾ 다른 여성들처럼 밭일과 집안일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계절과 농번·농한기의 구분 없이 제주도의 다른 여성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도 없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특히 입덧과 출산전후에도 물질을 하는 강인함은 높이 평가되어 왔다.³⁾

오늘날에 와서는 제주해녀를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물질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보았다. 제주해녀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조선시대의 문헌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 아니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이들이 남겨놓은 책들이다. 제주해녀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李建의「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⁴⁾ 17세기에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李建의 기록을 보면, 男女有別을 강조하였던 유교사회에서 남녀가 같이 물질을 한다고 놀라워하면서, 특히 <물소중이>만을 입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물질을 하는 제주해녀를 '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⁵⁾

1) '해녀'라는 일반적 지칭보다는 ① 육지의 해녀와 구분을 짓고, ② 스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잠수(潛嫂)'는 잠수(潛水)한다는 말과 중복되는 혼란을 피하고, ③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가 갖는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로 표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해녀'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전경수, 「한국문화론」, 일지사, 1994.

2) 바다면의 높이는 달의 끌림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太陰曆에 따라 潮水名을 정하는데 이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생기는 조류의 변화를 일컬어 물때라고 말한다. 물질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일컬어 제주해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3) 제주도, 앞의 책, pp. 16~20.

4) 李建, 「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출판년도 미상), 金泰能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5) <물소중이>란 제주여인들이 입었던 속옷 모양의 것으로 흔히 물옷(잠수복)을 가리킨다.

과거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나 유배인들이 천하다고 보았던 '벌거벗은' 모습은 제주도가 관광지가 된 오늘날에는 관광객을 위해 海女像과 관광도산품으로 다시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석상과 관광도산품은 요즘 보기 힘든 젊은 제주해녀를 모델로 하여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인의 전형이나 제주관광의 자원으로 상징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활동을 해왔던 여성 직업집단으로서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제주해녀는 전통적으로 가구 내에서 富를 일구는 존재였다. 그래서 물질능력이 신붓감이나 며느릿감의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제주해녀들 스스로 물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물질은 배우고 싶은 일이었기도 하였다.⁶⁾ 현재에도 물질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제주해녀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물질기피 현상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 마을 안에 물질하고 있는 제주해녀들과 '물질을 배워 보라'는 말을 욕으로 생각하는 젊은 여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제주해녀 중에는 물질하는 어머니를 딸은 천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흔히 물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물질작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거의 물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힘든 -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든 - 일이었다.

본 논문은 첫째, 강인한 정신, 천한 일, 성적 대상 등의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지, 제주해녀 자신들은 재현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해녀의 이미지가 관광상품으로 꾸준히 재생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가 관광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해녀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산소공급장치 없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여성을 제주해녀라 부르므로,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바라볼 때나 제주해녀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물질을 어떻게

'벌거벗은' 채 물질을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 물소중이만을 입고 물질하던 모습을 말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다(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p. 67).

6) 필자의 어머니(58세)는 "물질을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물질작업을 가는 제주해녀들의 의기양양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인식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물질기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주해녀 자신들은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이미지(images)는 담화나 텍스트처럼 표상체계의 물질 형식의 하나이다.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는 제주해녀라는 대상에 대한 '상상'(imaginary)의 한 표현이다. 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식의 투사 작용의 산물이며, 통상적 의미에서의 주관이라고 하는 영역이다.⁷⁾ 상상의 내용이 언어로 혹은 이미지로 표현될 때, 그 본래의 내용(혹은 의미)은 일단 퇴색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상상하는 행위는 대상을 현실로부터 분리시켜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이다.⁸⁾ 그러므로 이미지란 타인에 의해 대상을 현실로부터 분리시켜 상상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제주해녀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어떠함'의 내용이 곧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대상(제주해녀)으로부터 나와 재구성된 것이므로 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의 '제주해녀'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반영되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재현되게 된다. 이미지가 대상(제주해녀)으로부터 나와 재구성된 것이므로,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에 대한 정체성의 논의와 연계시켜야 한다.

이미지가 타인에 의해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상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면,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또는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내용들이 결합되고, 없어지고, 변화되며, 재조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다.⁹⁾ 정체성은 생물학적,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¹⁰⁾ 자

7) 이기현, "사회적 상상의 복원 혹은 상징의 사회화", 「현대사회의 이해」, 민음사, 1996, p. 42.

8) 제주도, 앞의 책, p. 42.

9) 김항원,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 19.

10) Richard Harvey Brown, *Society as Text: Essays on Rhetoric, Reason, and Reality*,

신과 관련된 타인의 행위까지 포함한 자신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와 결합된다. 이에 관한 정근식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집단 정체성 규정은 첫째,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이 누구인가, 둘째,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매개되며, 셋째,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초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¹¹⁾

집단의 정체성이건 개인의 정체성이건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의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에드워드 쉘즈(Edward Shills)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은 자신이 정체화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총체의 총 속에 존재하며 이 점을 인지한다. 그들이 기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변화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들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과거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점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상태에 대한 정체감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이 현재 보는 바>를 그의 과거 행동과 표현 유형으로 대체시킨다. 이러한 기억이 과거에 다양한 경우로 알려진 개인을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총체 속으로 압축시킨다. 즉 그들은 그의 과거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 파악한다.¹²⁾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28.

11) 정근식, "지역 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pp. 122~123.

12) Edward Shills, 『전통』, 김병서·신현순 역, 민음사, 1992, pp. 71~72.

이와 같이 현재의 개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기억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묶여 있는 존재이다. 자신이 전에 믿었던 것과 경험했던 것들 중 기억에 의해 보존된 것은 그가 자신이라고 인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과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체성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체성을 자아개념에 상응하는 자아정체성(self identity)으로 파악한다.¹³⁾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다고 믿는 관점에서 파악하면,¹⁴⁾ 정체성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신분, 그리고 기타 등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믿는 방식을 개념화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된다.¹⁵⁾ 제주해녀가 사회적으로 상징화되거나 상품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나의 생각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문헌, 제주지역에서 발행되었던 월간지, 각종 해녀석상과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한 관광토산품 등을 텍스트로 삼았다.¹⁶⁾

제주도에 관한 연구문헌으로서 우낙기의 「제주도」(한국지리연구소간행부, 1965)와 제주해녀에 관한 대표적 연구문헌으로서 강대원의 「해녀연구」(한진문화사, 1973), 조혜정의 “제주도 해녀사회연구”(「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1982, pp. 143~168), 김영돈의 “해녀”(「제주의 민속Ⅱ: 생산기술과 공예기술」, 제주도,

13) Richard H. Robbins, "Identity, Culture, and Behavior",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ohn J. Honigmann(e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Chicago), 1973, p. 1205.

14) 유철인,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p. 82.

15) Robbins, 앞의 논문, p. 1205.

16) 이들 텍스트의 중요성은 「III.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994, pp. 145~268)를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월간관광제주사의 〈月刊 관광제주〉 6호(1985, pp. 80~82)와 25호(1986, pp. 38~42), 월간제주인사의 〈月刊 제주인〉(1989, 9, pp. 122~124), 한국기자협회제주도지부에서 발행한 「제주저널」(1993) 등의 제주해녀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문헌과 월간지 등을 통해 그동안 제주해녀를 바라보았던 他者들의 시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헌들 외에도 제주도 북제주군 지역(한경면 판포리, 애월읍 구엄리, 구좌읍 동북리)에 있는 해녀촌의 해녀석상과 북제주군 한림읍의 석상제작소에 있는 해녀석상, 그리고 관광토산품점(구좌읍 동북리)에서 팔고 있는 제주해녀와 관련된 토산품(좌상, 쟁반, 사진틀 등)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⁷⁾ 석상과 토산품에 대한 사진 촬영은 1997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 석상과 토산품을 통해서 제주해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재현되고 있는 대상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9일에 온평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제주해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은 조사표(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표는 예비조사(pilot study)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부록 참조).¹⁸⁾ 질문에 대한 응답 요구 형식은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을 미리 설정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설계한 구조화된 질문(structured question)과 응답자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답이 개방되어 있는 비구조화된 질문(unstructured question)을 함께 사용하였다. 응답에 대한 기록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응답이 질문의도에 맞지 않을 경우는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반복 질문하였으며, 응답자의 표현방식을 가능한 그대로 기술하였다.

17) 해녀촌이란 해안도로를 따라 물질을 하는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이 마을 제주해녀들이 생산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 음식점의 운영방식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며 주로 관광객과 외부인이 많이 이용한다. 관광토산품은 관광지마다 거의 동일한 상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녀석상은 제주도의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18) 1996년 12월 22일부터 시작하여 23일과 1997년 3월 27일과 29일, 4월 13일과 21일, 5월 16일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와 한경면 판포리, 그리고 성산읍 온평리를 예비조사하였다.

1997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필자를 포함한 20명의 조사원이 37개의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들 중에서 20개의 사례는 성산읍 온평리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온평리에서는 성산읍 관내에서 제일 젊은 상군 제주해녀(33세)를 만나 심층면접을 하였다.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한 나머지 17개의 사례는 조사원들의 편의에 따라 제주시 용담동, 서귀포시 강정동, 대포동, 한림읍 귀덕리, 조천읍 조천리, 북촌리, 남원읍 신예리, 태흥리, 대정읍 하모리, 구좌읍 한동리에서 임의로 수집하였다.



II. 제주해녀의 현황

직업인으로서 물질하는 사람은 주로 濟州島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는 듯하다.¹⁹⁾ 제주해녀의 물질행위는 제주도의 해안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제주해녀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수출실적을 볼 때, 이들의 존재는 여전히 지역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제주해녀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

현재 제주해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13년에 제주해녀는 8,391명으로, 15세 이상 제주도 여자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⁰⁾ 이후 제주해녀의 수는 196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5세 이상 제주도 여자인구의 20%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 후부터는 <표-1>과 같이 제주해녀의 수는 계속 감소하여 1965년에서 1995년까지 30년 사이에 약 4분의 1로 감소하였다. 제주도의 15세 이상 여자인구에서 차지하는 제주해녀의 비율도 1995년에는 약 3%로 매우 낮아졌다.

제주해녀의 수는 특히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약 3분의 1로 감소하여, 이 기간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는 제주도가 감귤농업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던 시기라는 점에서, 제주해녀 수의 감소는 제주도의 개발정책과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65년 이후 제주도의 여성인력이 관광산업과 감귤농업 부문으로 흡수

19) 제주도, 앞의 책, p. 15, p. 42 참조. 직업인으로서 물질하는 사람이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해녀를 연구하고 있는 David W. Plath 교수(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과)는 탐라문화연구소 주최의 학술모임(1997. 5. 16)에서 세계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널리 볼 수 있으나,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장비 없이 잠수하는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0)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세계 섬학술회의(제주KAL호텔, 1997. 11. 28.) 발표논문, p. 5.

되면서, 새롭게 물질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해녀 집단은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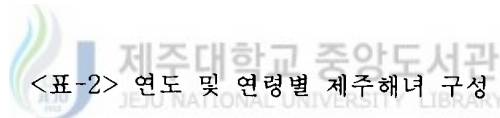
<표-1> 연도별 제주해녀 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1	1995
제주해녀 수(A)	23,081	14,143	8,402	7,804	7,649	6,815	5,886
15세 이상 여자인구수(B)	108,732	112,470	127,319	151,223	173,728	196,608*	199,323
제주해녀 비율 (A/B, %)	21.2	12.6	6.6	5.2	4.4	3.5	3.0

* 1990년도 통계임.

자료: 제주도 수산과 제공, 1997. 5.;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66, 199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제주도」, 1972.



<표-2> 연도 및 연령별 제주해녀 구성

(단위: 명)

구분 연도	해녀수 (%)	연령구성비 (%)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970	14,143 (100.0)	4,426 (31.3)	7,764 (54.9)		1,953 (13.8)		
1980	7,804 (100.0)	764 (9.8)	4,737 (60.7)		2,303 (29.5)		
1991	6,815 (100.0)	81 (1.2)	1,076 (15.8)	2,153 (31.6)	2,544 (37.3)	866 (13.0)	75 (1.1)
1995	5,886 (100.0)	35 (0.6)	587 (10.0)	1,377 (23.4)	2,160 (36.7)	1,424 (24.2)	303 (5.1)

자료: 제주도 수산과 제공, 1997. 5.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 가장 물질을 많이 했던 제주해녀는 30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10년 후인 1980년까지 이 연령층이 가장 활발하게 물질을 하고 있었다. 1970년에 전체의 54.9%를 차지하던 30, 40대 연령층은 10년 후인 1980년에는 그 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에서 60.7%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1991년에 이 연령층은 전체의 47.4%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30세 미만의 젊은 제주해녀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 전체의 31.3%였던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1980년에 9.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전체의 0.6%인 35명만이 30세 미만의 연령층이었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전체 제주해녀의 66%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해녀들이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²¹⁾ 1960년대와 그 이전에 물질을 배웠던 세대들이다.

2. 제주해녀와 지역경제

제주도내 직업별 여성취업자 117,000명(1995년 기준) 중에서 여성직종인 제주해녀는 총 6,135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²²⁾ 제주해녀의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현재 여성취업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제주해녀는 그 동안 여성직업 집단으로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제주해녀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는 그들이 채취한 수산물의 생산량을 알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제1종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전복, 소라고둥, 성게 등의 수산물은 대부분 제주해녀가 채취한 것들이다. 1960년대에는 제1종 공동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생산량이 제주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80%를 차지하

21) 지역마다 물질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물질을 얼마나 극성스레 치르는가, 해엄쳐 나가서 하는 '갯물질', 배타고 나가서 치르는 '벵물질', 어느 쪽에 치중하는가에 따라서 시작연령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p. 135 참조).

22) 제주도, 「제주형 사회복지시책(1996~2005)」, 1996, p. 417.

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²³⁾

제1종 공동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생산량은 1968년에 20,704톤에서 1977년에 40,767톤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1978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²⁴⁾ <표-3>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제주도의 어업별 생산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1종 공동어장의 생산량은 제주해녀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 생산량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어선어업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표-3> 어업별 생산추세

(단위: M/T, %)

구 분 \ 연 도	1980	1988	1990
합 계	39,565 (100.0)	40,656 (100.0)	36,688 (100.0)
1종공동어장	20,077 (50.7)	17,807 (43.8)	13,285 (36.2)
어 선 어 업	18,061 (45.7)	22,769 (56.0)	23,218 (63.3)
기 타 어 업	1,427 (3.6)	80 (0.2)	185 (0.5)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48.

제주해녀가 채취한 제1종 공동어장의 생산량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전체 제주도의 수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실적은 매우 높다. 1975년 이래 현재까지 제주도 전체 수출실적의 70% 내외가 수산물 수출이었다.²⁵⁾ 제주도 수산물의 수출에서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품목별 수출실적 중 소라, 문어, 톳, 알긴산, 계관초 등의 수출실적을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로 계산하여 <표-4>를 만들었다.²⁶⁾

23)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37, p. 858.

24) 위의 책, p. 847.

25) 부문별, 연도별 제주도의 수출실적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910, <표 1> 부문별, 연도별 수출실적의 추이.

<표-4> 수산물 수출에서 제주해녀에 의한 수출비중

(단위: 千\$)

연 도 \ 구 분	전체 수산물 수출 실적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 수출실적	제주해녀에 의한 수출 비중 (%)
1980	15,268	9,476	62.1
1986	21,435	12,845	59.9
1988	26,028	22,327	85.8
1990	24,446	16,963	69.4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56, p. 910.

<표-4>에서 보면, 제주도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8년도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실적이 전체 제주도 수산물 수출실적의 약 86%나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 제주해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제1종 공동어장의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제주해녀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실적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제주해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물질작업은 지역경제에서 여전히 비중있는 생산활동이라 하겠다.

26)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만의 수출실적 통계는 없지만, 제주도 수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56,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추세.

Ⅲ.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

제주해녀의 재현된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미지로서, 제주해녀에 대해 타인이 상상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하여 재구성된 이미지는 서로 다른 것이다.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를 ①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와 지역 잡지의 기사, 그리고 ② 해녀촌과 석상제작소의 해녀상, 그리고 제주해녀와 관련된 관광토산품 등을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를 문헌에 나타난 이미지로, 후자를 상품화된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1. 문헌에 나타난 이미지

제주해녀는 제주해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관한 연구, 지역의 여러 잡지 등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문헌들에서 근면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텍스트들은 대표적인 연구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우낙기의 「제주도」(사례 1)는 한국학자가 쓴 제주도에 관한 최초의 지리학적 연구이며, 강대원의 「해녀연구」(사례 2)는 제주해녀를 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성과이다. 사례 3)과 사례 4)의 텍스트를 쓴 조혜정과 김영돈은 제주해녀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사례 1)

海女는 탐라 제주의 뜻이다. 濟州島의 이야기는 海女에서 꽃피워서 해녀에서 끝맺는다. 그리고 海女는 탐라 제주의 象徴이다. 망망한 大海 속에 生命을 걸고 싸우는 그들의 싱싱한 모습들이 바로 한라산의 딸들이다. 海女는 탐라 제주의 근로의 女神이다. 春夏秋冬 四時節에 밭에서 김 안 매면 바다에서 물 질하는 숭고한 제주의 딸들이여! 27)

사례 2)

제주도민의 근면성과 자립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 실에 있어서는 제주도 잠수들의 눈물겨운 근로정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터이며 이 근로성은 그대로 제주도민의 자립정신의 표상으로까지 승화되어 나가고 있다.²⁸⁾

사례 3)

용마울의 해녀들은 경제적 가장으로서 책임이 크고,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일한다.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능률적인 인간이 용마울의 존경받는 여성상이다. 좋은 며느리감이란 물질 잘하고 발일 잘하는 이가 꼽힌다. 더구나 이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며, 일을 통해 얻는 대가를 자랑스럽게 추구한다.²⁹⁾

사례 4)

잘 알다시피 바르셀로나에서(1992), 히로시마에서(1994), 마라토너로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한국인의 의기와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게 한 황영조선수의 어머니도 제주해녀다. 황영조선수는 무엇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까? 그것은 결코 혈통만이 아니다. 오히려 불굴의 정신력이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까무러침이 없이 고난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다.³⁰⁾

1960~70년대에 쓰여진 사례 1)과 사례 2)를 보면, 제주해녀가 물질과 발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를 “탐라 제주의 상징”, “근로의 여신”, “자립정신의 표상”으로 그리고 있다. 제주해녀들이 발일이나 집안 일 등 보편적으로 제주여성이 해온 일들 외에도 물질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한다는 것이 된다. 또한 물질은 인내력과 강인함이 요구되는 노동이다. 따라

27) 우낙기, 「제주도」, 1965, p. 13.

28) 강대원, 「해녀연구」, 1973, 서문.

29)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1982, p. 159.

30) 김영돈, “제2절: 해녀,” 「제주의 민속Ⅱ: 생산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pp. 191~192.

서 제주해녀가 부지런하고 강인한 존재라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은 이들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군다나 물질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주해녀가 근로의 여신이나 자립정신의 표상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960, 197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로, 전국민이 경제발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강요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제주해녀의 억척스런 삶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알맞은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이미지는 더욱 더 근면한 여성으로 고착화 될 수 있었다.

1960, 1970년대의 제주해녀의 부지런한 이미지는 1980, 1990년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사례 3)의 조혜정의 글은 제주해녀를 “경제적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을 즐기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조혜정은 이들을 부모나 남편에게는 물론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자주성 품성을 지니고 있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³¹⁾ 사례 4)에서는 제주해녀가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한 마라토너의 승리 뒤에는 그를 길러준 제주해녀 어머니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주해녀가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해녀의 근면성은 자율성과 낙천성과 함께 제주해녀의 기질론으로 제주해녀를 다룬 여러 다른 글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³²⁾ 제주해녀는 지역의 관광전문지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잡지들은 외지인 관광객을 상대로 제주도를 소개하거나,³³⁾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잡지의 기사에서도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31) 조혜정, 앞의 글, p. 159, p. 160.

32)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한국사회학」 제 30호, 1996(봄호), p. 240.

33) 1984년 10월에 창간된 관광 전문지인 <월간 관광제주>의 발행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는 관광만이 아니라 읽어 아는 관광으로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 손님들에게 이 고장의 역사·민속·전설·민요·언어 등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제주 관광의 길잡이가 될 관광 전문 잡지를 발간하여 제주에 찾아오는 관광 손님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여러 갈래의 내용을 알려 삶과 관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며 나가고자 한다”(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사, 1997, p. 467).

사례 5)

이 고장[제주도]의 해녀는 부지런하고 기술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른 지방의 해녀보다 수도 많고 특출한 솜씨를 보이는 이유가 혹시 혈통에 관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결코 아니다. 척박한 땅에서 억척스런 생활력을 길러온 제주의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물질을 익혔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랜 노력의 결과로 그 솜씨가 뛰어나게 마련이었던 것이다.³⁴⁾

사례 6)

제주의 여성은 자신들의 삶을 부정적인 입장에 놓인 적이 없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슬기를 발휘해 왔다. 그 표본이랄 수 있는 것이, 물질을 함께 하며, 어린 사람에게서는 학교구실을 하고, 서로에게는 삶을 나누어 의논하고 숙의하는 토론장으로 '불턱'을 놓아 잠수공동체를 이루어왔고, …… 이상적인 더불어 사는 사회를 오래 전에 이룩했다.³⁵⁾

사례 7)

칠흙같이 어두운 겨울바다와 사투 끝에 무사히 생환한 高玉汝씨(54). 高씨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께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해안 2km 지점에서 소라를 채취하다 실종. 이날 장장 12시간의 사투 끝에 스스로 헤엄쳐 살아났다. 生과 死의 갈림길을 두고 눈보라 속 難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던 高씨는 살아 돌아오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미안한 듯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사 다닐 정도로 泰然自若해 제주海女の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⁶⁾

1980. 1990년대에 쓰여진 위의 잡지 기사에서 제주해녀는 “억척스런 생활력”을 가진 부지런한 여성,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온 “슬기”로운 여성, 생사의 갈림길에서

34) 월간관광제주사, “참으로 끈질긴 해녀들의 힘: 제주해녀의 역사와 현황,” <월간관광제주> 제6호, 1985, p. 80~82.

35) 한림화, “제주섬의 특색 여자: 척박한 땅 일구며 수놓아 살아온 제주여성의 슬기,” <월간 제주인>, 1989. 9, p. 124.

36) 한국기자협회제주도지부, 「제주저널」, 창간호, 1993.

도 의연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사례 5)의 기사는 제주해녀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강한 생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왜 제주해녀의 근면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외지인 관광객에게 심어주려고 했을까.

잡지의 기사에서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자랑으로 제주해녀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나아가서 지역에서도 제주해녀는 부지런하고 강한 여성이라는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게 된다. 여러 글에서 재생산되는 제주해녀의 “근면성의 신화”는 제주해녀들을 초과노동으로 내모는 담론이 될 수 있다.³⁷⁾ 나아가서 인용한 텍스트들은 제주해녀를 제주여성의 전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의 근면성의 신화는 제주여성들 모두에게 부지런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제주의 자랑으로 제주해녀를 소개하는 잡지의 기사(특히 사례 6)에는 제주해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든 제주여성의 모범으로 삼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제주해녀가 제주여성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제주도 여성단체의 한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타지방 사람들이 제주도 여성을 전부 해녀로 알고 있어요. 해녀는 단지 하나의 직업의 종류일 뿐이지 그게 전체 제주도 여성의 삶은 아니잖겠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도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³⁸⁾

결국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잡지기사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주해녀에 대한 신화화는 외지인이거나 지역주민이거나 “제주도 여성을 전부 해녀로 알고” 있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서 제주해녀에 대한 신화화는 전체 제주여성에 대한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로 발전되고 있다.

제주해녀는 일찍이 외지인이 볼 때 제주도의 자연경관만큼이나 이색적인 대상이었다. 관광객들은 관광안내 책자를 통해 처음으로 ‘제주해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37) 위의 논문, p. 241. 이 논문에서는 신화란 어떤 텍스트나 문화를 조건짓고,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거의 집단적 무의식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8) 월간 관광제주사, <월간 관광제주> 25호, 1986, p. 40.

사례 8)

가오리를 쥐고 있는 “해녀”의 미소 띤 얼굴들 또는 여성잠수들은 이어도의 숨겨진 꿈을 반영하고 있다. 해녀와 주위의 바다사이에는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 해녀에게 바다는 그들의 삶이며 꿈이고 동시에 고향이다. 쉬는 날 없이 해녀는 망사리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다가 힘든 지난날을 잊게 휴식 시간을 마련해주는 전복과 소라들과 같은 풍부한 해산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³⁹⁾

위의 관광안내 책자의 글에서 묘사된 제주해녀는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잡지사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치열함이나 억척스러움은 찾아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생사를 오락가락 하며 물질을 하는 여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미소 띤 얼굴”을 한 평화스러운 존재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이어도의 숨겨진 꿈”으로 신비화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의 전설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낙원으로, 제주해녀는 제주의 이상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제주해녀를 “쉬는 날 없이” 일하지만 전복과 소라 등 채취물로 인해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화는 관광객에게 제주해녀가 낭만으로 다가오게 만들며, 이방인의 눈에 제주해녀의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마저도 신비롭게 보여지게 한다. 이처럼 관광홍보 책자에서는 제주해녀가 힘든 물질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제주의 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관광산업의 필요에 의해 낭만과 신비의 대상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상품화된 이미지

현재 제주도는 국내의 유명한 관광지이다. 관광은 관광지 주민이 생산하고, 영위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팔게 되는 특수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관광의 맥락 속에서 주민의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관광객에게 팔려 나가게

39) 제주도, <Fantastic Paradise Cheju Island>, 1994, p. 47.

된다.⁴⁰⁾ 제주해녀가 관광산업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는 <해녀촌>에서 볼 수 있다. 해녀촌은 대부분 그 마을의 제주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며,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들이다.

해녀촌에는 일반적으로 해녀상이 세워져 있다. 해녀상은 이곳이 제주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임을 상징한다. 해녀촌 근처에는 해녀탈의장이 있어 물질작업에서 갓 채취한 해산물을 해녀촌에서 바로 제공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의 해녀상을 보면서 '제주해녀'를 만나게 된다. 해녀촌의 석상은 <사진 1>~<사진 3>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실물보다 크게 제작되어 있다.

사진 속의 해녀상들이 제주해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물옷 때문이다.⁴¹⁾ 지금은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고 있지만, 해녀상으로 형상화된 제주해녀는 모두 물옷을 입고 있다. 이는 물옷을 입었던 과거의 제주해녀가 진짜 (authentic) 제주해녀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 1>과 <사진 2>의 해녀상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입었던 어깨말이(조끼허리)를 댄 물옷을 입고 있다.⁴²⁾ 그러나 당시에 실제 제주해녀들이 입었던 물옷의 어깨말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는 것은 아니었다. <사진 3>의 해녀상 역시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제주해녀들이 입었던 물소중이 위에 물적삼을 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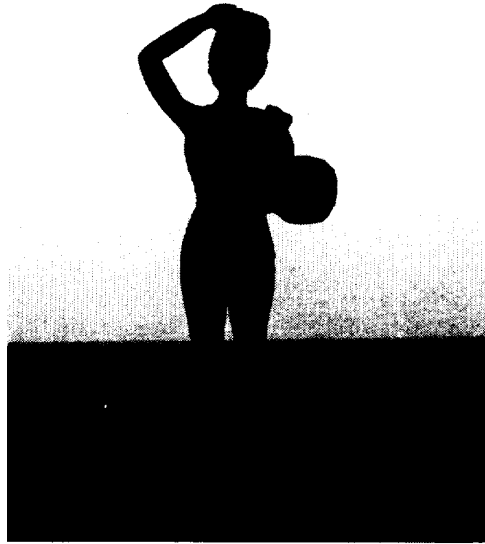
해녀촌의 해녀상들은 모두 '큰 눈'(큰 물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다. 수중안경('눈')은 '작은눈'(작은 물안경)과 큰눈이 있는데, 작은눈에서 큰눈으로 대체된 시기는 대략 1960년대이다.⁴³⁾ 따라서 해녀촌의 해녀상들은 모두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제주해녀의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다.

40) 전경수, 「관광과 문화」, 일신사, 1994, p. 15.

41)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었던 옷을 말한다. 보통은 물소중이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한 고무잠수복을 온평리 해녀들은 "고무옷"이라고 하여, 물옷과는 구분하여 말하고 있었다.

42) 김정숙, 앞의 논문, p. 76 참조.

43)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p. 17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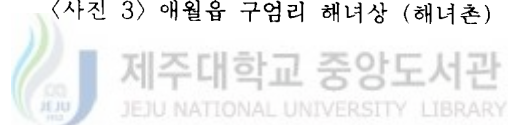
〈사진 1〉 한경면 판포리 해녀상(해녀촌)



〈사진 2〉 구좌읍 동복리 해녀상(해녀촌)



〈사진 3〉 애월읍 구엄리 해녀상 (해녀촌)



그러나 해녀촌의 해녀상들은 제주해녀를 흉내내고 있는 조형물일 뿐이다. 물옷을 입고 물질작업을 할 때는 머리수건이 필수적인데, 해녀상들은 모두 머리수건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구좌읍 동북리의 해녀상(사진 2)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어 당시 제주해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관광객을 위한 전시물인 해녀상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모두 동일하다. 한쪽 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실제 제주해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바다에서 나와 소금기에 젖은 얼굴로 태양을 바라볼 여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⁴⁴⁾ 더군다나 해녀상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흔히 전문적인 광고모델들

44) David W. Plath교수(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과)는 탐라문화연구소 주최의 학술모임(1997. 5. 16)에서 일본에서는 물질을 하면 바닷물로 인해 피부가 상하고 검게 타서 얼굴이 미워지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물질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나 사진모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취하는 자세이다. 이들이 입고 있는 물옷은 수영복에 가깝고(사진 1, 2), 모두 젊은 여성들이 모델이 되고 있다.

해녀상은 비단 해녀촌에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다른 관광지에서도 해녀상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북제주군 한림읍에는 관광객을 위해 돌하르방을 비롯한 각종 석상을 제작, 전시, 판매하는 석상제작소가 있다. 단체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는 석상들을 전시해 놓은 작은 공원, 음식점, 토산품점 등이 있다. 전시되고 있는 석상들은 모두 제주도의 전설, 신앙, 풍물 등 제주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바다나 제주해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곳에서 '제주해녀'는 제주문화의 하나로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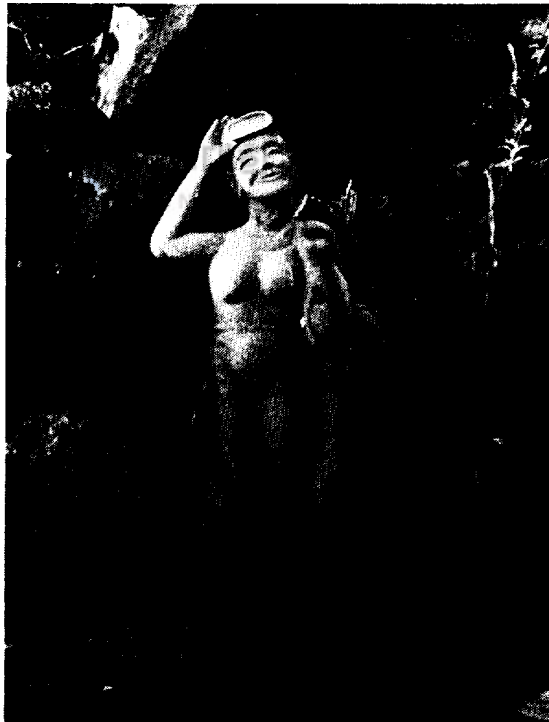
〈사진 4〉는 석상제작소 내에 조성된 인공폭포의 모습이다. 여기에 있는 조형물 중 한 가운데 보이는 것은 魚神(男)을 안고 있는 인어(女)이며, 오른쪽에는 해녀상이 서 있다.⁴⁵⁾ 상상 속의 인어와 어신을 중앙에 배치시켜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이들 뒤편에 해녀상이 배치되어, 인어와 어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제주해녀는 성적 대상으로 이미지화 되고 있다. 〈사진 4-1〉은 〈사진 4〉 속의 해녀상이다. 해녀촌의 해녀상과 마찬가지로 이 석상도 '해녀'라기 보다는 먼저 '여성'을 연상케 한다. 입고 있는 물옷과 물안경 때문에 이들을 '제주해녀'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사진 5〉에 나타난 석상제작소의 조형물은 제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해녀상과 동자상이 모여 있다. 이곳의 해녀상은 지금까지 제시된 해녀상들과는 다르게 모성과 풍만함이 강조되어 있다. 같은 석상제작소에 있는 조형물을 찍은 〈사진 4-1〉과 〈사진 5-1〉을 비교해 볼 때, 〈사진 4-1〉의 해녀상이 더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진 5-1〉의 해녀상은 날씬함보다는 하복부가 강조된 풍만함을 보여주고 있어, 제주해녀가 모성의 이미지로도 재현되고 있다.

45) 어신과 인어를 중심으로 양쪽 뒤에는 해녀석상이 있었고, 이 사진에서는 한쪽에 서 있는 해녀석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 인어와 魚神, 그리고 제주해녀 (석상제작소)



〈사진 4-1〉 해녀상 (부분)



〈사진 5〉 해녀군상 (석상제작소)



〈사진 5-1〉 해녀상 (부분)

제주해녀가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되어 많이 판매되는 곳은 관광토산품점이다. 제주해녀를 실제로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객은 드물 것이다. 관광토산품점에서 관광객들은 가장 손쉽게 '제주해녀'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토산품을 통해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토산품들은 제주해녀의 상품화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관광토산품들은 제주해녀를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을까. 토산품점에는 목상과 석상, 좌상과 입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해녀상을 대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소재로 하여 만든 열쇠고리, 팬통, 해녀쟁반 등의 관광기념품들이 있다.

〈사진 6〉은 토산품점 입구에 전시된 해녀마네킹이다. 이국적인 마네킹의 얼굴에 불적삼과 물소중이를 연상시키는 옷을 입혀 놓았다. 그러나 실제의 물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입고 있어 이것이 단지 전시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토산품점의 주인은 마네킹의 물웃을 일년에 한 번 정도 세탁하여 다시 입히곤 한다고 말했다. 입구에 세워놓은 해녀마네킹은 이곳이 '제주해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마네킹을 입구에 세워 놓고 있는 것이다.

〈사진 7〉은 장식품인 해녀좌상이다. 망시리와 테왁을 가지고 있고 물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는 해녀장식품은 실제 제주해녀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앞서 제시된 해녀석상들처럼 하늘을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실물보다 크게 세워지는 해녀석상이나 장식용 해녀상이나 모두 비슷한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은 석상이나 토산품을 제작하는 곳에서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하늘을 응시하며 미소짓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이미지가 가장 제주해녀에게 적합한 이미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한다.

〈사진 8〉은 '제주해녀'들의 사진과 제주시의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쟁반이다. 사진 속의 제주해녀는 하얀 물소중이에 소살(고기 잡을 때 쓰이는 도구)을 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실제의 제주해녀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잘 빠진 몸매와 하얀 피부를 가진 전문적인 모델들임을 알 수 있다.



〈사진 6〉 해녀 마네킹 (토산품점)



〈사진 7〉 장식용 해녀 좌상 (토산품점)



〈사진 8〉해녀 쟁반 (토산품점)



〈사진 9〉신혼부부 사진틀 (토산품점)

〈사진 9〉는 신혼관광객을 위한 사진틀이다. 사진틀의 해녀상은 힘든 노동으로 생긴 근육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매끈하고 잘빠진 몸매를 가진 여성으로 마치 미인선발 대회의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 이 사진틀은 한라산과 돌하르방, 제주해녀와 신혼부부 등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들을 담아 제주도를 상품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제주해녀의 모습

해녀상으로 재현된 제주해녀의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해녀상을 보면, 젊은 제주해녀를 연상하게 된다. 또한 해녀상에 재현된 제주해녀의 미소를 보면, 물질작업을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 제주해녀의 모습은 이와 다르다. 얼마나 다른지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진 10〉과 〈사진 11〉는 1997년 가을, 성산읍 온평리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나오는 제주해녀를 찍은 사진이다.⁴⁶⁾ 망시리와 테왁, 소살을 들고 나오는 이들은 검은 고무옷에 큰눈을 쓰고 있는 중년여성들이었다. 이들은 허리에 납덩어리를 차고 있는데, 이는 고무잠수복이 나오면서 잠수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납덩어리는 요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질작업은 집단적으로 동시에 시작되지만 작업을 마치는 것은 기량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일정지역으로 물질하러 나가면 함께 작업하는 동료해녀(벗)가 있게 마련인데, 〈사진 10〉과 〈사진 11〉의 두 제주해녀가 바로 그런 벗이다.⁴⁷⁾

46) 이 사진들은 본인들의 허락을 받고 찍은 것들이다.

47) 조혜정, 앞의 논문, p. 148 참조. 이 논문에서는 제주해녀들이 혼자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짝 짝을 지어 작업을 하고, 물질이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물질은 자기 능력만큼 번다는 면에서 개인적인 동시에 함께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집단적이라고 한다. 필자 역시 물질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을 올리게 되는 개인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어촌계의 규율과 잠수회의 불문율에 따라서 물질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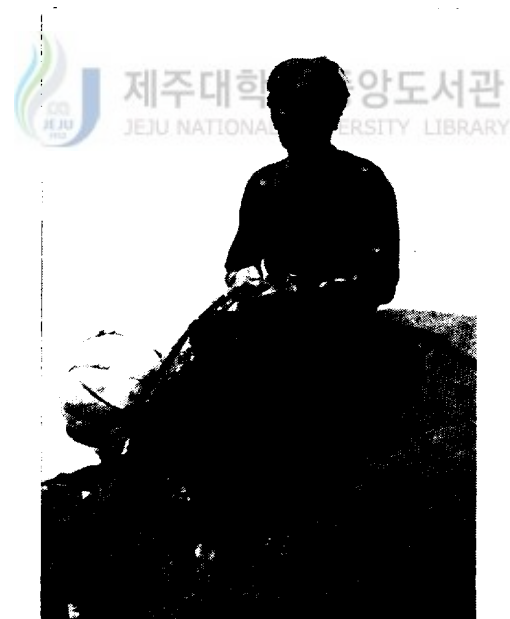
〈사진 10〉 작업을 마친 후 망시리를 들고 나오는 모습 (온평리)



〈사진 11〉 작업 후 불턱으로 향하는 모습 (온평리)



〈사진 12〉 귀가하는 제주해녀들(판포리)



〈사진 13〉 최고령의 제주해녀 (우도)
사진제공: 제주일보사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사진 10>과 <사진 11>의 두 제주해녀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사진 12>에서도 판포리의 제주해녀들은 모두 얼굴을 돌렸다. 모두 중년 또는 중년을 넘긴 이들은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것을 꺼려한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은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자신의 “몸매가 이쁘지 않아서”, 또는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라 “초라해 보이니까” 남들이 사진 찍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재현된 제주해녀의 이미지가 제주해녀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품화를 통해 알려진 제주해녀의 모습이 젊고, 수영복 차림을 연상시키는 물옷을 입고,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어떤 제주해녀는 “돈이나 주면서 찍으면 그래도 덜 나쁘겠다거나, “찍을 때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싫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에는 제주해녀를 상품화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품화의 영향으로 이들 역시 제주해녀의 모습이 돈을 받고 찍을 수 있는 상품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3>은 1997년 6월 21일자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에 보도된 사진이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우도면 오봉리에 사는 최고령의 제주해녀로 현재 나이는 90세이다. 15세부터 물질을 하여 지금까지 75년간 물질을 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바다를 등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할머니는 지금은 일상이 된 물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진 13>의 할머니는 앞서 제시한 사진에 나오는 제주해녀들과는 달리 죽은눈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무옷을 입고 있다. 실제 제주해녀의 모습을 담은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이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보도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앞의 사진들과는 다르다.

관광산업은 사람이든 사람의 정신이든 가리지 않고 판매대 위에 올려놓아 문화를 상품화하고 있다. 문화의 상품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자기비하, 자아상실, 소외감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⁴⁸⁾ 예를 들면, 온평리의 한 제주해녀는 상품화된 해녀상

을 보면 “못 살았던 기억이 나서, 가슴이 아파”라고 말하였다.

제주해녀는 재현된 해녀상을 보고 자신의 과거경험을 떠올리고,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에서 몇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제주해녀를 대상화하여 상징하는 행위가 반드시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현실 속의 자신과 괴리된 채 과거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상징화는 제주해녀에게 심리적 비하감을 주고 있다. 셋째, 제주해녀는 자신들을 대상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48) 전경수, 앞의 책, p. 16.

IV.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

제주해녀는 산소 공급장치 없이 물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제주해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나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인식이다. 제주해녀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도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제주해녀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은 현재에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다. 물질은 천한 일이라는 사회적인 관념이 아직도 남아있고, 제주해녀 자신들은 물질을 “먹고 살켄(먹고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과거 물질에 대한 기억은 다른 사람과 제주해녀 자신 모두에게 제주해녀를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준거가 된다.

그렇다면 물질이 힘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물질을 하고 있는 제주해녀 자신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제주해녀 자신들이 말하는 물질을 하게 된 동기, 물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등을 통해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1. 물질을 하게 된 동기

제주해녀가 가장 많았던 1960년대와 그 이전에는 물질하는 모습을 제주도의 해안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당시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대물림되는 물질을 매우 자연스럽게 숙명처럼 받아들였다.⁴⁹⁾ 물질을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은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9)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p. 125.

“자연스럽게 바다에 가서 미역도 캐고 하면서 물질하게 된다. 배우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을 때였다.” (용담2동, 64세, 물질경험 47년)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바다에 들어갈 줄만 알면 가서 물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시작했다. 주변 분위기가 누구나 시간 나면 하니까.” (남원읍 위미리, 55세, 물질경험 40년)

“물질능력을 보고 서로 며느리, 아내로 맞으려고 물질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물질한다는 생각을 했다.” (성산읍 온평리, 72세, 물질경험 60년)

물질을 배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었던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는” 물질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며, 만약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물질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리고 물질이 경제적 富를 가졌다 주었기에 물질능력은 사회적으로 며느릿감·신붓감을 고르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바다 깊숙이 자맥질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그리고 결혼 전에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 같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 물질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주해녀들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다.

물질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위이다. 그러나 물질동기에 대한 제주해녀들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놀이’로서의 물질이다. 물질을 “놀이로 시작하다가 익히게 되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동기가 없이 자신이 익히 보아왔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이다. 이렇게 시작한 물질을 놀이로 시작하게 된 물질로 간주하였다. 이때 놀이라는 것은 제주해녀 자신이 물질을 즐긴다거나 물질하며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을 하게 된 자연스러움을 뜻한다.

두 번째는 '벌이'로서의 물질이다. 놀이로서의 물질과 다르게, 물질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게에 보태려고" 본격적으로 물질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활이 곤란하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물질을 했다거나, "시집이 가난해서" 물질을 시작했다는 이들의 이야기에는 경제적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동기에서 물질을 시작하였다는 의미에서 이를 '벌이'로서의 물질로 간주하였다.

조사표를 사용하여 수집된 37개의 사례 중에서, 놀이로서의 물질이 14사례, 벌이로서의 물질은 23사례였다. 놀이로 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친구들과 또는 동네사람들과 함께 물질을 익히게 되었고, 벌이로 하게 된 경우는 주로 혼자서, 아니면 친정어머니나 언니로부터 물질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⁵⁰⁾ 이처럼 물질을 하게 된 동기에 따라 물질을 배워준 사람도 다르게 나타났다.

물질동기에 따라 현재 가게의 총수입에서 물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물질의존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벌이로 시작한 게 된 경우가 놀이로 하게 된 경우보다 현재에도 물질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⁵¹⁾ 벌이로 시작한 물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주해녀는 여전히 경제적 동기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물질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낮은 경우보다 물질이 제주해녀 자신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물질을 하게 될 것이다.

물질을 '혼자서 배웠다'는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경제적 동기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조사표를 사용하여 수집된 37개의 사례 중 혼자서 물질을 익혔

50) 놀이로 하게 된 14사례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물질을 익혔다는 경우가 8사례, 동네사람이 3사례, 친정어머니가 2사례, 혼자서 익혔다는 경우가 1사례 있었다.

벌이로 하게 된 23사례의 경우, 혼자서 물질을 익혔다는 경우가 11사례, 친구들이 5사례, 친정어머니가 4사례, 동네사람이 2사례, 언니로부터 배웠다든 경우가 1사례 있었다.

51) 놀이로 하게 된 14사례에서는, 가게비를 물질소득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사례가 4, 반이상을 의존한다는 사례가 2, 1/3정도 의존한다는 사례가 5,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3개의 사례가 있었다.

벌이로 하게 된 23사례에서는, 가게비를 물질소득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경우가 7사례,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경우는 9사례, 1/3을 차지한다는 경우가 4사례,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3사례가 있었다.

물질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사례는 현재 모두 고령자들로 채취량이 적은 사람들이다.

다는 사례는 12사례였다. 그중 11사례가 벌이로 물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여기서 혼자서 배웠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질을 배우더라도 결국 개인의 기량에 맞추어 스스로 꾸준히 훈련을 해야만 익히게 되는 물질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혼자서 배웠다는 것은 함께 물질작업을 배운 동료나 집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훈련과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물질을 하게 된 것이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절실한 사정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물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물질은 자칫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일이며, 반복된 훈련과정이 필요한 힘든 일이다. 제주해녀들도 물질이 고달프고 힘든 중노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물질을 하고 있다. 혼자서 물질을 배웠다는 현씨 아주머니는(40세, 물질경험 25년) 자신이 지금까지 물질을 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뿐이다. 해녀들은 해녀일 말고 남의 일을 못한다. 왜냐면 돈이 적기 때문에 성이 안 찬다. 바다에서는 약 하루에 오만 원이나 많이는 십만 원도 버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번 일당과는 비교가 안된다. 또 해녀일은 집안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깐 좋다.

그러나 해녀일은 그만큼 몸이 안 좋다. 노동 중에도 아마 제일 낮은 노동일 거다.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다.”

위의 현씨 아주머니는 물질이 노동 중에서 “제일 낮은 노동”이므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물질을 하게 되는 것은 물질이 다른 일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씨 아주머니는 다른 조사항목에 대해서 답할 때에도 물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이야기하였다: “아무 일이나 다 힘들 듯이 물질도 힘들지만 [물질은] 순간적으로 힘든 것으로 이만큼 수

입이 좋은 것이 없다.”⁵²⁾

다른 제주해녀들도 물질이 “당장의 현금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질을 한다거나 “다른 일보다 수입이 많아서 [물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였다. 다른 일로 버는 일당과는 비교가 안되게 많은 물질소득이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은 물질이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제주해녀는 물질 하는 것이 “다른 직장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스러움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주해녀는 물질을 경제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물질 소득으로 자식을 교육시켰을 때, 집을 지었을 때, 목돈을 마련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농사일과 물질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제주해녀들은 당장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어 물질이 농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였다. 농사소득은 현금화되기까지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부분의 채취물은 보통 2~3일, 소라대금도 약 5~10일이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더군다나 물질은 자기의 기량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상군의 경우 연간 수입이 밭농사에 비해 더 많은 편이었다.⁵³⁾ 또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토지와 자본(농약비, 인건비, 종자비 등)이 필요하고, 수시로 돌봐야 하는 잔일들이 있는 반면, 물질은 간단한 잠수도구(태왁, 망시리, 소살, 비창, 물안경 등)만 있으면 물때에 따라 자신이 일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은 물질이 당장의 현금소득을 많이 가져다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질을 하면서도, 딸이 물질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하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물질이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물질을 배웠던 당시는 물질이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것이었고, “여자가 배우고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이 물질뿐”이었지만, 자신이 “물질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고, 그런 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52) 조사표의 16번 항목인 “만약 따님이 물질을 배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현씨 아주머니는 다시 물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조사표의 전체 항목은 <부록: 제주해녀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표>을 참조할 것.

53) 제주해녀의 수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제5호, 1986, pp. 145~268.

“예전 같지 않아서 물질 아니라도 밥 벌어먹고 살 일은 많다. 그런데 구태여 힘든 물질은 배워서 뭇하겠는가. 물질은 나이 먹으면 다 병 되어서 나타나는 데. 그리고 또 그리 자랑할만한 일도 못되는데 자식에게까지 시켜서 뭇하겠는가?” (58세, 물질경험 40년)

“예전에야 특별히 배운 것이 없고,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주위에서 대부분 물질을 하나까 물질을 배우기도 하고 많이들 했지만, 이제는 거의 대학까지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우는데 그리고 다른 직업도 많은데, 대학까지 다녀가지고 물질을 배우겠다고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 하겠다손 치더라도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55세, 물질경험 40년)

더군다나 지금은 물질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물질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주해녀들은 물질로 병을 얻고 해서 “자랑할만한 일도 못되”고, “목숨을 맡기고 하는” 위험한 일이라서 “할 게 못”되며, 물질과 함께 밭일도 해야하는 노동의 과중함 때문에 딸에게 물질을 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그들도 물질을 하겠다는 딸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해오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는 물질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은 그녀의 자기 만족일 뿐 딸에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고,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어촌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느낀다는 한 젊은 제주해녀도 딸의 물질은 반대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물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에 대한 대답이나 딸이 물질을 배우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대답은 물질에 대한 제주해녀 자신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계속하는 것은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은 딸이 물질을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다는 이유가 자신이 힘든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노동의 과중함은 타인들이 제주해녀를 부지런하고 강인한 존재로 상징화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러나 물질과 밭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과중함 때문에 누구도 -딸마저도- 제주해녀가 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V.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

제주해녀에 대한 여러 종류의 글에서 제주해녀의 이미지는 부지런하고 강인한 존재로 칭송되어 나타났고, 관광산업은 젊고 매력적인 '장식용 해녀'로 상품화된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타인이 갖는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나(제주해녀)에 대한 타인의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타인에 의해 상징화된 이미지로부터 나는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들에 의해 상징화된 제주해녀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 되지는 않는다.

물질에 대한 인식도 내가 제주해녀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물질로 인해 내가 타인에게 제주해녀로 인식되고, 나 역시 물질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해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였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이 세대와 현재의 물질 숙련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볼 것이다. 또한 사회적 정체성은 他者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은 달라지기도 한다.

1.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37명의 제주해녀 중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좋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6명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예전에는 조금 천하게 보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해녀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것 같다. (38세, 중군)
- 여성으로서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생활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48세)
-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물질을 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생각한다. (54세)
- 돈을 잘 번다고도 하고, 고생한다고도 하여 좋게 본다. (63세, 하군)
- 해녀에게 손도 흔들고 반가워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본다. 애기도 서로 재미있게 하고 “고생한다”라는 등의 말도 건네온다. 우호적인 것 같다. (63세, 상군)
- 여자의 능력으로 높은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 할 것으로 본다. (70세)

위의 제주해녀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을 생계를 위해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으로, 따라서 착하고 생활력이 강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대에 따라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이 다르다. 60대의 두 제주해녀는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해녀에 대한 여러 종류의 글에서 칭송한 제주해녀의 이미지인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이라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70세 제주해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든 세대들은 물질소득으로 그동안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재산을 일구었으며, 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온평리에 살고 있는 38세의 중군해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해녀”를 하나의 직업으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18살 때 가정형편 때문에 물질을 시작하였다. 지난해(1996년)의 농사소득은 약 700만원이었고, 물질소득은 약 1,000만원으로, 현재까지도 물질은 그녀의 가계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물질소득으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해녀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여성의 일로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주해녀라는 그녀의 사회적 정체성의 주된 내용은 직업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직업에 관심을 가져 주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물질이라는 직업이 다만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일 뿐, 그런 힘든

것도 경제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그녀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에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질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37명의 제주해녀 이외에 현재 나이가 33세인 상군해녀를 만나 심층면접을 하였다. 지난해 운평리에서 물질소득이 가장 높았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결혼 후 남편이 아프게 되자 물질을 시작하게 되었다. 경제적 동기로 물질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물질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심층면접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녀가 자신을 보는 관점과 동료 제주해녀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었다.

그녀는 물질도 “머리싸움”으로 하는 것이라며,⁵⁴⁾ 물질은 “자유직종이고 기술직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한다. 높은 물질소득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녀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물질을 선택한 것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물질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보든간에 자신이 물질하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직업과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 자신을 다른 제주해녀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못살아서 오래전에 물질을 시작한 사람으로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안 좋게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물질하는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녀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천박하고 너무 노동량이 많으니까 좀 박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해녀라면 안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애마썸.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라면 꽤 괜찮은 직업이죠. 힘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같지 않게 탈의시설도 좋고, 옛날에는 시설도 안 좋으니까 물질하는 것도 안 좋아서마썸. 확실히 바닷가에서 목

54) 예를 들어 부는 바람에 따라 바닷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어디서 작업해야 한다는 것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욕하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박하다고 생각은 안해마썸.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마썸.”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물질이 천박한 일로 평가받았으며, 노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주해녀는 “박하다”(인정이 없고 메마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현재는 물질이 “벌어도 괜찮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가질 수 있는 직업치고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볼 때는 “안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사회적 정체성보다는 자아정체성이 더 강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제주해녀들이 다른 사람들(특히 관광객)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 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것 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제주해녀들이 화장하지 않은 얼굴과 몸매선 때문에 사진에 찍히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였다.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화장을 할 리가 없듯이 “해녀인데!”, 그리고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있는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상품화된 제주해녀의 이미지가 동료들 사이에 제주해녀라는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2.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37명의 제주해녀 중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좋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모두 23명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40세의 제주해녀는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삼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벌이로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77세의 제주해녀도 다른 사람들은 물질하는 것을 “재미로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40대에서 60대에 걸친 4명의 제주해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구경하기 좋은” “제주도 특산물”로 “신기하게” 본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첫째, 다른 사람들이 물질을 운동삼아 재미로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이 제주해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외지인 관광객들이 자신들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이 젊고 매력적인 제주해녀의 이미지로 상품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해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48세의 중군해녀와 53세의 제주해녀)이었다. 이는 물질을 배웠던 자신의 과거경험 속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48세 중군해녀는 다른 사람들이 “오죽 못살아야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물질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질을 배우게 된 것이나 지금까지 물질하는 이유도 단지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는 면접조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부정적인 내용을 자아정체성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다른 제주해녀(55세)도 면접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하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집에 밭이나 일구어 먹을 것이 없다보니 물질을 하는 것으로” 다른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물질을 활발하게 하여 과수원을 장만하게 되자, 현재는 과수원 일을 물질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당장의 현금 때문에 물질을 하고는 있지만, 붙여 먹을 땅이 없어 물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재의 관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불쌍하게 본다고 응답한 또다른 제주해녀(53세)도 남들이 그렇게 보겠지만 “가정환경으로 어쩔수 없이 물질을 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약간은 체념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창피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다. 그녀는 가게에 보태려고 친정어머니로부터 물질을 배워 16세부터 물질을 하였다.

이처럼 제주해녀들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경험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는 제주해녀를 천하게 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좋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23명중 가장 많은 14명이 다른 사람들은 제주해녀를 “천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천하게 본다라고만 응답하지 않은 몇 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천하게 본다. (51세, 중군)
- 매우 힘들고 역센 일을 하기 때문에 천하게 여긴다. (44세)
- 너무나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천하게 본다. (54세)
- 속옷차림을 했기 때문에 천하게 본다. (58세, 중군)
- 물질이 힘든 일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저 고무옷에 수중오리발 신은 모습이 신기하게만 여기는 것 같다. 천하게 본다. (46세, 상군)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천하게 보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주해녀들이 힘들고 역센일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힘들고 역센일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일부 다른 제주해녀들에게는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져다 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해녀가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이미지화 되고 있는 바탕도 제주해녀의 바로 이런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들 제주해녀는 왜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본다라고 생각하는가?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가 필요했던 1960, 1970년대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제주해녀는 제주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재의 세대 속에서 제주해녀는 어렵고, 힘들며, 더군다나 위험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주해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이러한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보다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제주해녀(47세의 중군해녀)는 제주해녀가 부지런하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해녀질 한다고, 요새는 웃음거리밖에 안돼”라고 말하였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이 부지런하고 강할 수 있었던 것이 못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못살았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천하게 본다고 여기고 있다. 과거의 자신이 과중한 노동을 해야만 했고, 물질밖에 배울 수 없어서 물질을 하게 된 경험이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제주해녀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쉴즈의 주장처럼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⁵⁵⁾ 결국 제주해녀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제주해녀를 과거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 자신도 “근본적으로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천하게 볼 것이라는 또다른 이유는 관광의 영향과 물옷 때문이다. 단지 구경거리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 제주해녀들보다 더 강하게 관광의 영향이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다. 현재 제주해녀들은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고 있지만, 1970년 이전까지는 물옷(물소중이와 물적삼)을 입고 물질을 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제주해녀를 재현하고 있는 석상들과 각종 토산품들은 모두 물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현되고 있는 제주해녀의 이미지 때문에 현재 제주해녀들은 고무옷을 입고 물질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연상할 때는 물옷(“속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3. 세대와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은 제주해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과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해녀들은 30대의 젊은 세대와 60세 이상의 나이든 세대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물질을 하는 40, 50대의 중간세대

55) Edward Shills, 앞의 책, p. 71.

56) 위의 책, p. 72.

들은 거의 다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57)

30대의 젊은 세대는 강한 경제적 동기에 의해 물질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40, 50 세대들은 6·70년대 제주사회의 변화를 겪으며 물질을 시작하여 현재 가장 활발하게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나이든 세대는 일찍이 50년대부터 물질을 시작하여 현재는 고령에 이른 제주해녀들이다.

세대에 따라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정체성은 정체성의 한 측면(또는 관점)이므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정체성의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젊은 세대에서는 물질에 대한 자부심이 직업의식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교육도 받고 직장생활도 해보았던 사람들이기에 물질도 하나의 직업으로 믿고 있었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물질을 어엿한 직업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은 '나는 어엿한 직업인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나이든 세대 역시 긍정적인 내용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젊은 세대의 것과 달랐다. 나이든 세대들은 자신이 고생하여 얻은 경제적 안정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주변 분위기가 누구나 시간 나면 물질을 하던 시기에 물질을 시작한 세대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주해녀에 대한 여러 글에서 칭송한 제주해녀의 이미지인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과 비슷하게, 나이든 세대의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은 '나는 고생 끝에 보람을 찾은 생활력이 강한 경제적 가장이다'라는 것이다. 결국 고생과 보람속에 살아온 이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제주해녀를 신화화하고 이미지화하는 대상인 셈이다.

57)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는 대개 15세에서 20세까지였으며, 물질 경력은 평균 38년이었다. 만약 15세에 물질을 시작한 제주해녀가 15년 동안을 물질했다고 한다면 현재 나이는 30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30세 이하의 제주해녀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물질을 20세에 시작하여 20년 동안을 물질을 했을 경우 현재 나이가 40세이고, 40세 미만은 현재 젊은 해녀층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를 한 세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물질을 시작하는 나이인 20세와 그후 물질경력 20년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40세 미만을 젊은 세대(세대 I), 40에서 59세까지를 중간세대(세대 II), 60세 이상을 나이든 세대(세대 III)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물질을 시작하는 나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물질경험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다.

4. 50대의 중간세대들은 물질이 가장 활발했던 60, 70년대에 시작하여 관광과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직까지 물질을 하는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관광과 못살았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강하게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에 영향을 끼쳤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보면, 물질로 먹고 살아야 했던 못살았던 과거와 물질은 3D업종의 일이라는 현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천한 게 보거나 불쌍하게 본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중간 세대의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비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소개했듯이, 어떤 중간 세대의 제주해녀에게서는 사회적 정체성의 부정적인 내용을 자아정체성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4. 물질 숙련도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해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물질을 가끔씩 하는 사람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또한 물질 숙련도에 따라 제주해녀는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이라 불리는 그들 집단 내의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대상 중 온평리의 제주해녀만을 상·중·하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온평리의 제주해녀는 모두 3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온평리 어촌계에 등록된 수는 148명이다. 어촌계에 등록된 수가 적은 것은 한 가구당 한 명만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온평리 어촌계에서는 등록된 148명을 지난해(1996년)의 연간 소득에 따라 상군(32명), 중군(65명), 하군(51명)으로 나누고 있었다.⁵⁸⁾ 온평리에서는 제주해녀들이 현대식 탈의장과 함께 예전부터 탈의 공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공간으로 사용했던 불턱(노천 탈의장)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 불턱은 상군 전용과 중군 전용이 구분되어 있어, 친목계도 불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58) 온평어촌계에서는 상군은 연간 소득이 보통 7백80만원 이상, 중군은 4백 20만원 이상, 그 이하를 하군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따라서 친목계의 이름도 불턱의 이름을 붙여 센동산 친목계(상군 친목계), 여마진개 친목계(중군 친목계)라고 부르고 있었다.

상군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물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군, 하군은 밭농사를 겸함으로써 상군만큼 물질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일(농업 혹은 상업)을 얼마나 겸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의 물질작업은 영향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물질소득은 달라지게 된다.⁵⁹⁾ 그러나 물질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여 모두가 상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은 자신의 훈련과 체력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앞서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은 크게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과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라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이 크게 달랐으나, 물질 숙련도에 따라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이 다를 것이라는 예상은 기대에 어긋나게 나타났다. 물질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정체성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물질 숙련도에 따라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물질 숙련도는 제주해녀의 현재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의미있는 他者들은 대부분 현재의 제주해녀를 과거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주해녀 자신도 근본적으로 과거의 자신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자아정체성의 경우에는 한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호작용하여 항상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⁶⁰⁾ 현재의 물질 숙련도는 제주해녀의 자아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자아정체성은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보다는 심층면접을 통한 생애사 방법을 사용할 때 잘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⁶¹⁾

59) 물질을 하는 시기가 농번기일 때 물질과 밭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농작물 수확기는 그 시기를 미룰 수 없는 것이므로 자연 물질작업을 못 나가게 되는 것이다.

60)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pp. 397-419.

61) 심층면접을 한 유일한 사람인 33세의 상군해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자신을 보는 관점이 많이 드러났다(본 논문, pp. 42-43 참조).

4. 他者の 의미

사회적 정체성은 他者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은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제주해녀들은 이 타자를 육지사람과 물질을 하지 않는 제주사람으로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제주해녀에게서 이러한 구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관광의 영향이 크다. 제주도 관광은 주로 한 국가사회 안에서의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만남이므로, 제주사람들은 육지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보는 관점이 주로 관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다.⁶²⁾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을 좋게 보지만 육지사람인 관광객들은 천하게 보거나 구경거리로 생각한다고 믿는 제주해녀들이 많았다. 한 58세의 제주해녀는 자신들을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좀 신기하게 보는 것 같고, 같은 제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51세의 상군해녀는 자기네들을 "제주도민은 안그러는데, 육지사람은 천하게 본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 제주해녀가 관광상품이 되었고, 상품화된 이미지 속에서 관광객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이가 55세인 한 제주해녀는 "같은 제주도 사람의 경우에 보면 그리 좋은 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관광객이나 타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흥미있어하는 것 같다"고 반대로 이야기하였다.⁶³⁾ 이 제주해녀는 물질을 시작하게 된 과거를 제주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보다 같은 제주사람이 더 자기네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의 못살았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천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에게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타자는 주로 같은 제주사람인 것이다.

62) 유철인, 앞의 논문, 1986, p. 82~83.

63) 이렇게 말한 제주해녀는 본 논문의 43쪽에서 소개했던 55세의 제주해녀와 같은 사람이다.

VI. 결 론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어떻게 해왔고,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해녀는 각종 문헌에서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고, 관광산업은 제주해녀를 젊고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상품화하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자신들이 상징화되고 상품화되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정체성만을 다루었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는 -- 물질이 가장 활발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고생을 한 끝에 현재는 어느 정도 보람의 열매를 맺은 6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를 모델로 하여 --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이라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제주도와 제주여성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실제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를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제주해녀의 이미지가 사회변화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변화·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주해녀는 산소 공급장치 없이 바다 깊숙이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제주해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나, 그 바탕은 물질에 대한 인식이다. 제주해녀들은 물질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다른 일에 비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물질을 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세대에 따라 물질을 시작하는 과정은 사뭇 달랐다. 30대의 젊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은 못살았고, 생계를 위해 달리 배울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물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어엿한 직업으로 물질을 택하였다.

생계를 위해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물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주해녀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것이라라는 제주해녀들의 생각은 세대에 따라 달랐다. 6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들은 자신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이야기

하였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나이든 세대들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활발하게 물질을 하는 40·50대의 중간 세대들은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 특히 제주사람들이 -- 못살아서 시작할 일이라는 과거를 상기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천하게 본다고 대부분 이야기하였다. 나이든 세대와 중간세대는 물질을 해온 경험이 비슷함에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이들과는 물질을 해온 경험이 틀린 젊은 세대들은 제주해녀를 하나의 직업으로 택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에게는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의미있는 타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개념 틀로 정체성을 분석할 때는 의미있는 타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제주해녀들은 타자를 육지사람(관광객)과 제주사람으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두 종류의 타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볼 것이라는 생각은 제주해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육지사람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을 천하게 보거나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바라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관광객들이 제주해녀를 만나는 곳은 대부분 해녀촌이나 관광토산품점이다. 이곳에서 상품화된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제주해녀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것임을 제주해녀 자신들도 알고 있었다.

이미지나 정체성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며, 계속 재구성되는 것인데, 본 논문은 단지 한 시점에서 하나의 틀로 보았을 뿐이다. 또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로 삼았던 문헌이나 초형물도 주관적으로 몇 개만을 선택한 것이며, 주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파악했다. 따라서 제주해녀가 등장하는 문학작품, 민요, 각종 영상물 등을 분석한 이미지에 대한 연구나 심층면접과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한 제주해녀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원,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973.
-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1996, pp. 227~258.
- 김영돈, "제2절: 해녀," 「제주의 민속Ⅱ」, 제주도, 1994, pp. 190~280.
-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 "海女調査研究,"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pp. 145~268.
- 김은희, "濟州潛嫂의 生活史: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 김정숙, "濟州島海女服研究,"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pp. 53~142.
- 김항원,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 우낙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간행부, 1965.
- 월간관광제주사, "참으로 끈질긴 해녀들의 힘: 제주해녀의 역사와 현황." <월간 관광제주> 6호, 1985, p. 80~82.
- 월간관광제주사,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부활로 여성활동의 새전기 마련." <월간 관광제주> 25호, 1986, pp. 38~42.
- 유철인,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제5호, 1986, pp. 71~93.
-,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pp. 397~419.
-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세계섬학술회의 발표논문(제주KAL호텔, 1997. 11. 28), 1997.
- 이 건, 「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출판년도 미상), 金泰能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이기현, "사회적 상상의 복원 혹은 상징의 사회학," 「현대사회의 이해」, 문화와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1996, pp. 41~62.

-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사, 1997.
- 전경수, 「한국문화론」, 일지사, 1994.
-, 「관광과 문화」, 일신사, 1994.
- 정근식,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사회과학연구소 편,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pp. 117~148.
- 제주도, 「濟州道誌」 제2권, 1993.
-, 〈Fantastic Paradise Cheju Island〉, 1994.
-, 「濟州의 海女」, 1996.
-,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1996~2005)」, 1996.
-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1982,
pp. 143~168.
- 한림화, "제주섬의 특색 여자: 척박한 땅을 일구며 수놓어 살아온 제주여성의 슬기,"
〈월간제주인〉(9월호), 1989, pp. 121~124.
- 한국기자협회제주도지부, 「제주저널」, 창간호, 1993.
- Brown, Richard Harvey, *Society as Text: Essays on Rhetoric, Reason, and Re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Robbins, Richard H., "Identity, Culture, and Behavior,"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ohn J. Honigmann(e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Chicago), 1973,
pp. 1199~1222.
- Shills, Edward, 「전통」, 김병서·신현순 역, 민음사, 1992.

<부록: 제주해녀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표>

면접자____ No.____

- * 성명: _____
- * 나이: _____
- * 가족사항: _____ 명 (___ 남 ___ 녀)
- * 친정 가족사항(몇남 몇녀 중 몇째):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째
- * 고향: _____
- * 현거주지: _____ 읍(면) _____ 리
- * 전화번호: _____

*** 물질을 배우게 된 과정 ***

1. 물질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2. 몇 세때부터 물질을 배우셨습니까? (세)
3. 결혼은 언제(몇 세때) 하셨습니까? (세)
 - 3-1. 물질은 결혼 전(또는 결혼 후)에 하신 겁니까?
 ① 결혼 전 ② 결혼 후
4. 물질은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① 친정어머니 ② 시어머니 ③ 언니 ④ 친구들 ⑤ 기타 ()
5. 물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게에 보태려고
 - ② 놀이로 시작하다가 익히게 되어서
 - ③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5-1번 문항으로)
 - ④ 기타 ()
- 5-1. 주변사람이란 누구입니까? ()
- 5-2. 주변사람이 물질을 권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물질과 경제적 관계 ***

6. 현재 물질 이외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6-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6-1. 있다면 어떤 형태입니까?
 ① 반농반어 ② 반어반목 ③ 전업나잠업
- 6-2. 물질로 얻은 소득과 밭농사나 목축 등을 통해 얻은 연간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물질로 얻은 소득은 어느 정도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
 ② 가계에 반 이상 의존하고 있다.
 ③ 가계에 1/3정도 의존하고 있다.
 ④ 거의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7. 현재까지 물질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① 당장의 현금소득원이 되니까
 ② 다른 일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③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④ 기타

*** 물질 경험이 있는 가족 ***

8. 친정식구와 시집식구들 중 아주머니 외에 누가 물질을 하셨습니까?

가족관계		물질경험						
		생 (生)				사 (死)		
		지금도 물질을한다	가끔씩 한다	지금은 안한다	기타	돌아가실 때까지물질함	돌아가시기 전에그만둠	기타
친 정	어 머 니							
	자 매	①()						
		②()						
	올 케	①()						
		②()						
시 댁	시 어 머 니							
	시 누 이	①()						
		②()						
	동 서	①()						
		②()						

*** 제주여성과 제주해녀의 이미지 ***

9. 제주여성들은 육지여성보다 부지런하며 강한 기질을 지녔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 (9-1번 문항으로)
- ② 별로 다를바 없다 _____ (10번 문항으로)
- ③ 아니다 _____

9-1. 부지런하며 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 ② 못살았기 때문에
- ③ 천성이 부지런해서
- ④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여서
- ⑤ 기타

10. 제주해녀들은 다른 제주여성보다 부지런하며 강한 기질을 지녔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 (10-1번 문항으로)
- ② 별로 다를바 없다 _____ (11번 문항으로)
- ③ 아니다 _____

10-1. 부지런하며 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 ② 못살았기 때문에
- ③ 천성이 부지런해서
- ④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여서
- ⑤ 기타

11. 다른 사람들이(제주도 사람이나 관광객을 포함하여)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입)

12. 관광객들이 해녀모습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 ① 좋다 (12-1번 문항으로) ② 나쁘다 (12-2번 문항으로) ③ 그저 그렇다

12-1. 좋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2. 나쁘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3. 제주해녀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지런하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실이 그러하다
- ②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_____
- ③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 _____ (13-1번 문항으로)

13-1. 어떤 면이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 가족과 물질에 대한 인식 ***

14. 남편께서는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 _____

부정적인 면: _____

15. 자제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 _____

부정적인 면: _____

16. 만약 따님이 물질을 배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배우도록 하겠다
- ② 못하도록 말리겠다 (16-1번 문항으로)

16-1.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녀자신이 보는 해녀의 이미지 ***

17. 같은 해녀의 입장에서 다른 해녀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이상)

장점: _____

단점: _____

18. 아주 옛날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물질을 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현재 여자만 하는 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여성의 직업으로서 물질이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 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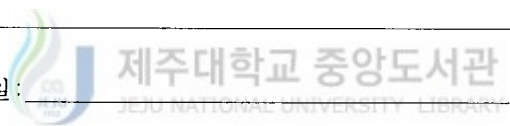
20. 물질을 하시면서 어촌계 또는 수협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1. 물질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22. 지금까지 물질을 하시면서 가장 서러웠던 일과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서러웠던 일: _____

보람을 느꼈던 일: _____



***** 수고하셨습니다 *****

@ 면접후기(면접상황/ 특기사항/ 의문점/ 난점 등을 기록)

감사의 글

늘 학교 입구를 지날 때마다 보곤 했던 벚나무들이 내게는 시계와 같았다. 그 가로수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젠가 마무리되어 있을 내 논문을 떠올리곤 하였다. 꽃망울을 품고 있을 때부터 녹음이 짙었던 여름, 그리고 가을. 빈가지만 남은 지금, 난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에 와 있다.

늦어서 다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부모님 덕분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가족들. 특히 세 동생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선다.

'제주해녀'에 대해 쓴다고 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제주해녀에 대해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신 유철인 지도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거듭 느끼곤 하였다. 지도교수님께서도 내가 낮익게 보았던 사물에 대해 그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오류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은 논문을 쓰면서 얻었던 가장 큰 배움이었다. 그리고 불편함을 마다하시지 않고 기꺼이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논문을 거듭 꼼꼼히 읽어 봐 주신 그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를 맡아주신 신행철 교수님, 김석준 교수님의 지도로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는 욕을 다듣는 노력으로 글을 써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들의 지도를 다 소화해냈다면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분들의 지도가 있었기에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논문이 나오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신 사회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많이 어지러웠던 나의 논문초고를 읽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셨던 윤택림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내 글에 대해 늘 고민을 해준 이는 일본인 연구생인 이지치 노리코이다. 그녀는 나와 함께 토론하며 내 글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나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나보다 더 내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도움을 주신 김휴찬 선생님과 야간 작업 때마다 나의 벗이 되어 준 대학원생 경진이와 혜경이. 지루해지기 쉬웠던 나의 일상에 늘 새로움을 느끼게 해준 후배 회야와 재광, 일호, 그리고 스캐너 작업을 해준 제성이는 후배이기 전에 나에게 좋은 벗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올 한해는 남은 20대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혜선언니와 우리 학과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조사과정에서 만났던 온평리의 잠수들과 동생처럼 대해주신 강애순 잠수회장님, 고태완 어촌계장님, 그리고 강은주와 현미옥씨는 나에게 제주해녀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제주도청 수산과의 양희범씨의 도움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분들은 나에게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다. 그분들의 도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낯선 곳에서 힘들게 면접하느라 고생한 사회학과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돌아보면,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게 스쳐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털웃음으로 늘 편안하게 대해주신 이영길 선생님과 어떤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공부하게 된 가장 강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던 친구 장정훈, 현숙언니와 친구 정아, 미정, 성숙, '섬하나 산하나' 식구들. 그들 모두에게도 나의 논문이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어느 누구에게든 이 논문이 읽혀지는 기쁨을 기대해본다.